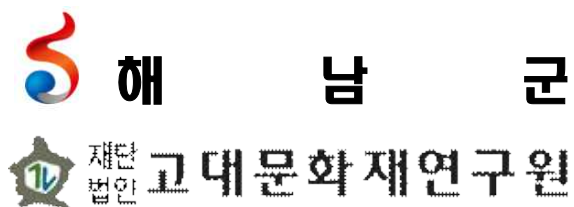


---

해남 이진성지  
시굴조사 용역 약보고서

---

2022. 08.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 - 목 차 -

I . 조사개요 .....	1
II . 조사지역 주변환경 .....	2
1. 자연 · 지리적 환경 .....	2
2. 고고 · 역사적 환경 .....	5
III . 조사내용 .....	17
1. 조사지역 .....	17
2. 조사방법 .....	20
3. 조사현황 .....	22
IV . 조사결과 .....	40
■ 조사단 의견서 .....	41
■ 자문위원 의견서 .....	42
■ 출토유물 현황 .....	43

##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해남 이진성지 시굴조사용역 (허가 제2022-0528호)

2. 유적위치 :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227번지 일원

### 3.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지역인 해남 이진성지(시도기념물 제120호)는 1988년 12월 21일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2년 해남군,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해남군』 사업을 진행하며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처음 유적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후 2011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조선수군진-전라우수영편을 제작하며 현지조사를 통한 유적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지표상 유적 현황만 확인되었을 뿐 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이진성지에 대한 첫 조사로 현재 성문 주변으로 수목 및 자연침하 등이 일어나 지속적인 문화재 훼손이 일어나고 있어, 수군진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이진성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잔존성에 대한 원형을 파악하고 지속적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 덧붙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진성지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체계를 수립하여 이진성지의 복원과 해남군의 문화관광자원 활용대책에 사용 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4. 조사면적 : 2,563㎡ (서문지 : 1,935㎡, 남문지 : 628㎡)

5. 조사기간 : 2022. 03. 21. ~ 2022. 08. 17.

### 6.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김승근(고대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 조사원 : 김진영(고대문화재연구원 연구위원)
- 조 사 원 : 김진희(고대문화재연구원 실장)
- 준 조 사 원 : 복은기, 김비파, 최요한(고대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송영창, 김지훈(고대문화재연구원 연구원)

7. 조사의뢰기관 : 해남군



## Ⅱ. 조사지역 주변 환경

### 1. 자연·지리적 환경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서남해안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화원반도와 산이반도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대둔산(972m)과 두륜산이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도형 지형이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6°15'~126°43', 북위 34°18'~34°45'까지이다. 동쪽으로 강진군, 남동쪽으로 완도군, 남서쪽으로 진도군, 서쪽으로 신안군, 북서쪽으로 영암군과 목포시 등 5개 시·군에 인접한다. 면적은 1,013.2km<sup>2</sup>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1읍 13개면 법정리 177개리, 행정리 514리, 자연부락 564리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 1. 조사지역 행정·지리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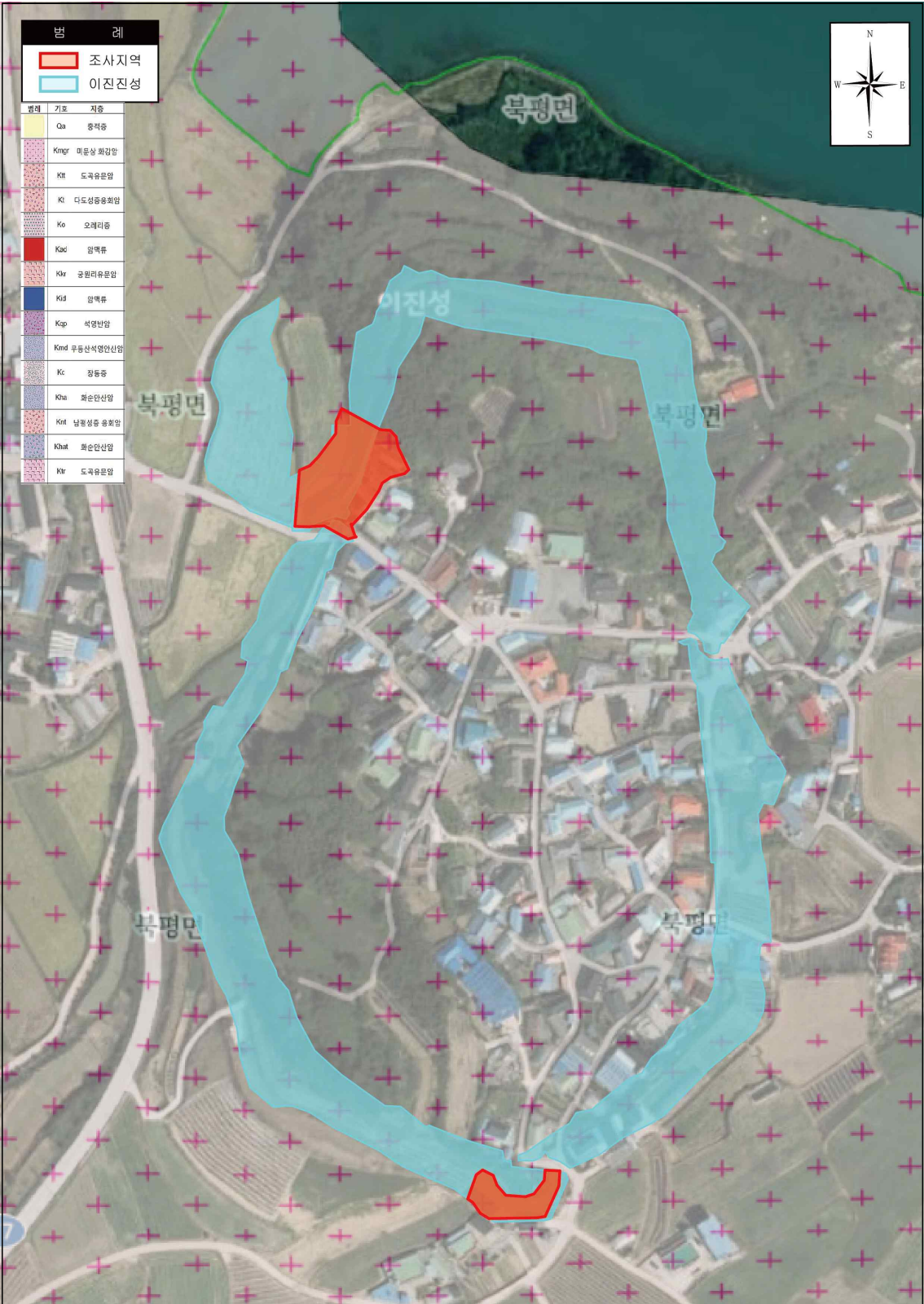
(출처 : 두산백과)

옛날부터 해남지역은 영산강유역의 문화요소들이 파급되거나 형성되는 배경으로 혹은 반도의 중심세력이 전파되는 막다른 길목으로서 더욱 크게는 서남부를 경유하는 해로가 중국-한반도-일본을 연결한 문화이동로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이 주목되는 곳이다. 지형은 산이, 화원, 해남의 3대 반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백산맥의 지맥이 해남반도 끝까지 이어지면서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부지역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산으로는 대둔산(672m), 흑석산(659m), 금강산(481m), 달마산(489m), 두륜산(703m) 등이 있고 해남군의 중부 및 서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척지, 양식장, 염전 등이 이어진다. 하천은 短流로 방춘천, 계곡천, 옥천천, 삼삼천, 조막천, 구산천, 군곡천, 산정천, 봉황천, 고현천, 현산천, 월호천 등이 있어 농토를 적셔주고 있다.

지질은 석돌이라 하여 건축과 토목용으로 사용되는 화강암과 변성화강암이 많고 화산재 등이 굳어져 가공이 용이해 토목재료 등에 사용되는 응회암과 분암 등이 복잡한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 암석의 풍화작용과 바다의 퇴적작용으로 이루어진 평야로는 옥천평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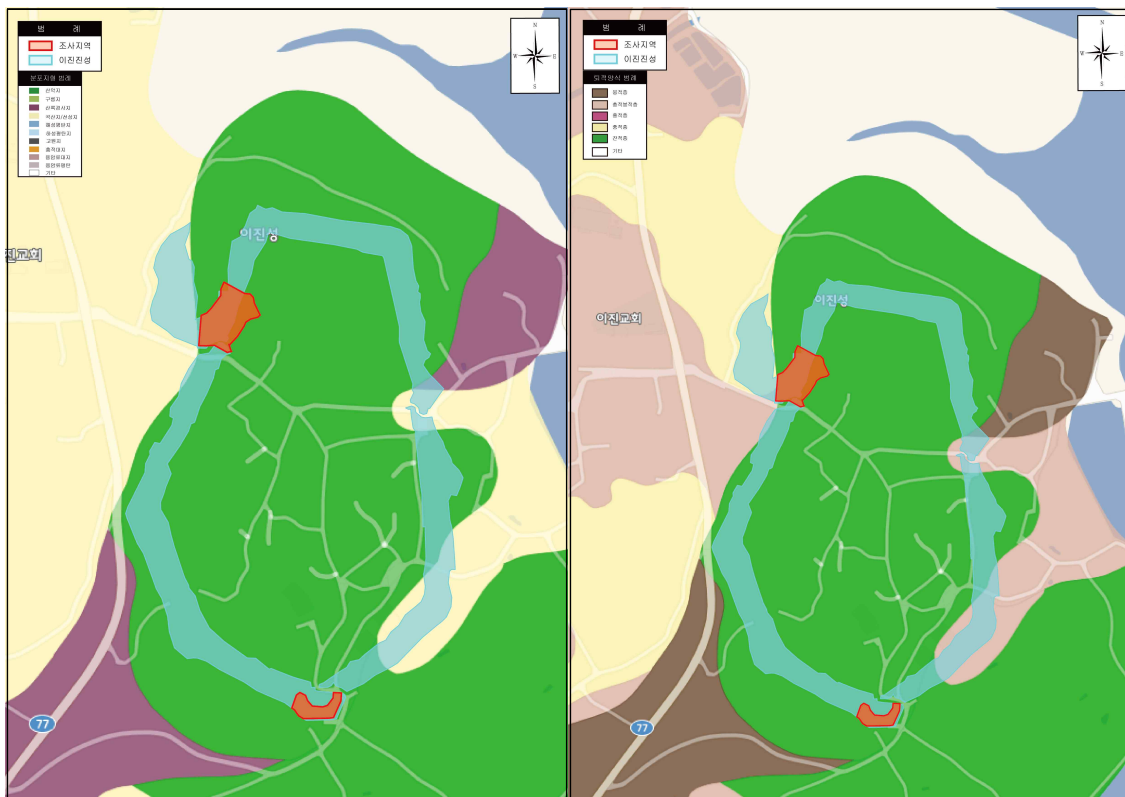
해안선은 육지부 225.80km, 도서부 76.60km 등 총연장 302.40km에 이르며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에는 그 굴곡마다 간척지가 있고 김양식장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화원반도, 산이반도가 영암군과 잇는 영산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간척지가 형성되어

있다. 도서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8개 등 총 65개로 이루어져 있다.



도면 2. 조사지역의 지질도(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후는 해양성 기후로 온화하며 농업과 어업에 알맞다. 또한, 황해 동부해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기후 중 따뜻한 편으로 대륙성 기후의 영향도 받고 있다. 평균기온은 13.7℃, 평균최고는 18.9℃, 극값최고는 34.7℃, 평균최저는 8.8℃, 극값최저는 -9.1℃이며, 강수량은 1,495.5mm, 평균 상대습도는 74%, 바람의 평균풍속은 2.3(m/sec)이다 (2010년 12월 31일). 지질은 화강암, 변성화강암, 분암, 응화암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 3. 조사지역 토양분포 및 퇴적양상(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조사지역인 북평면은 21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12개의 무인도를 가지고 있다. 북평면 동쪽으로는 영농지대를 이루고 있고, 남부의 해안지대에서는 양식업을 하고 있다. 해남군의 남단에 있으며 북쪽은 현산면·삼산면·북일면, 남쪽은 바다, 서쪽으로는 달마산을 경계로 송지면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완도군을 바라보고 바다와 접하고 있다. 쌀과 보리가 주산물이며, 특산물로는 김이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120호인 이진성지[1988년 지정]과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제19호 달량진성[2010년 지정]이 있다.<sup>1)</sup>

1)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 2. 고고·역사적 배경

### 1) 고고학적 배경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서남해안의 가장자리에 위치함으로써 고대로부터 한반도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이 교차되는 곳으로 해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인 환경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주목되고 있다.

해남지역의 선사·고대유적에 대한 목록은 1975년<sup>2)</sup>과 1977년<sup>3)</sup>에 각각 작성된 바 있으나, 본격적인 종합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6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서이다<sup>4)</sup>. 이후에도 해남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지표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져 새로운 유적들이 추가·보완되었으며<sup>5)</sup>, 또한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해남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에서 새로운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sup>6)</sup>.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산이면 대진리 월산에서 석영제 짝개, 덕송리 덕곡에서 굽개.격지, 덕송리 황조에서 몸돌.소형 짝개, 구성리 구성에서는 몸돌이 채집되었다. 그리고 문내면 충평리 신평에서는 굽개, 화원면 성산리 척북에서는 여러면석기·석창편·몸돌, 성산

2) 최몽룡, 1975, 『전남고고학지명표』, 전남매일신문사출판국.

3)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전라남도』.

4)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5) 성낙준·신상효, 1989, 「해남 원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국립광주박물관.

최성락·정영희, 1997, 「고고학적 지표조사보고」, 『화원관광단지조성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김경칠, 1997, 「해남 영호리유적과 출토유물」, 『박물관연보』제6호,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정영희·박철원, 1998, 「현산-해남간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해남고현리 지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고용규, 1999, 「고고·관방유적」, 『문내-황산-해남간 국도 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이헌종·호용수, 2001, 「남창-삼산간 국도 확·포장공사지역의 고고유적」, 『남창-삼산간 국도확·포장공사구간 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은화수·최상종, 2001, 「해남 북일면일대 지표조사보고」,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 보고』, 국립광주박물관.

최성락·정영희·한성욱, 2001, 『영산강 금호1-1공구·마산2공구 내부개답공사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이영철·이은정, 2002, 「전남 해남 출토 신자료 보고」, 『호남고고학보』15, 호남고고학회.

정영희·최미숙, 2002, 「해남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적·유물」, 『박물관연보』11호,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정영희·김승근, 2002, 『영산강 산이2-1공구·금호1-2공구 내부개답공사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송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정영희·최미숙, 2003, 『영산강 산이2-2공구·금호2-1공구 내부개답공사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정영희·송태갑·최미숙, 2004, 『화원-삼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정영희·김병수·박영훈, 2006, 「옥천 대산지구 발기반정비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화원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정영희·김병수·박영훈, 2006, 「문내 무고지구 발기반정비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화원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6)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전남 해남군』.



리 방죽골에서는 몸돌이 채집되었다<sup>7)</sup>. 이는 해남지역의 역사가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인 현산면 백포리 두모 貝塚에서는 굴껍질로 이루어진 貝殼層에서 즐문토기편이 채집되었다<sup>8)</sup>.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석묘와 주거지로 구분되는데 지석묘는 88개군 860여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화산면·현산면 일대, 산이면·마산면 일대, 계곡면·옥천면 일대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호동리, 고현리, 장소리·선진리, 분토리 지석묘가 발굴 조사되었다. 호동리에서는 하부구조가 파괴되어 積石構造 일부만 확인된 지석묘 1기와 주변지역에서 石斧 1점이 채집되었다<sup>9)</sup>. 고현리에서는 상석 1기와 하부구조 2기가 조사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다<sup>10)</sup>. 장소리에서는 지석묘 1기가 조사되어 무문토기편, 석촉, 석도가 출토되었고, 선진리에서는 상석 3기가 조사되었으나 출토된 유물은 없다<sup>11)</sup>. 분토리에서는 지석묘 1기와 석곽 5기가 조사되었다<sup>12)</sup>.

주거지는 남창-삼산간 국도확장공사 구간인 현산면 분토리에서 13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松菊里型으로 평면형태는 方形과 圓形으로 구분되며, 무문토기편·방추차·석촉·석부 등이 출토되었다<sup>13)</sup>.

원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인 패총은 군곡리와 옥녀봉에서 조사되었다. 군곡리패총에서는 패각층과 함께 주거지와 토기요지도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다량의 토기, 골각기, 석기, 철기, 중국 신나라 때 화폐인 貨泉 등이 출토되었다<sup>14)</sup>. 토기요지는 적황색 석비례층을 파고 만든 칸이 없는 지하식 登窯이다. 옥녀봉패총에서는 대옹토기편, 적갈색연질 토기편, 타날문토기편이 채집되었으며, 주변에는 옥녀봉 토성이 있다. 옥녀봉 토성은 해발 200m 내외의 정상에 있는 테뫼식과 포곡식이 혼합된 복합식 토성으로 고대 산성지로 추정되고 있다<sup>15)</sup>. 주거지는 해남 신금과 분토리에서 발굴 조사되었다. 신금유적은 3~5세기대로 주거지 72기, 수혈 19기, 구 9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수혈식이며,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기둥배치, 벽구시설, 벽체, 부뚜막시설 등이 조사되었다<sup>16)</sup>. 분토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19기, 수혈 4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벽구시설, 주공, 화덕자리 등이 확인되었으며 외부시설은 배수구가 조사되었다<sup>17)</sup>.

7)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전남 해남군-』.

8)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7, 「해남 백포만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9) 최성락 외, 1992, 「해남 호동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10) 이영문·이정호, 1998, 『해남 고현리 지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11) 최성락 외, 2000, 「해남 장소리·선진리유적」,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12)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향산리 분토유적』Ⅰ·Ⅱ.

13)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향산리 분토유적』Ⅰ·Ⅱ.

14) 최성락, 1987·1988·1989, 『해남 군곡리 패총』Ⅰ·Ⅱ·Ⅲ, 목포대학교박물관.

15)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

16) 이영철 외, 2005, 『해남 신금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고분과 주거지가 있다. 이 중 고분은 석관묘, 석곽묘, 옹관묘, 석실묘, 圓墳과 長鼓墳(전방후원형분), 방대형고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삼산면과 북일면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원분은 만의총<sup>18)</sup>을 포함하여 월송리 조산고분과 용일리 용운고분 등이 해당되고, 장고분은 방산리 장고봉고분과 용두리고분 등이 있고 신월리고분은 방대형고분에 해당된다.

분토리에서 발견된 석곽묘는 5기가 조사되었으며, 4호분은 주매장시설로 1기가 확인되었는데, 구릉의 북쪽 사면부에 수 개의 판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이중으로 덧대어 축조하였다. 분구의 성토층을 굴착하여 축조하여 조사 시에 벽석들이 내부로 쏠려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수혈식의 구조로 판단 된다<sup>19)</sup>. 또한 옹관묘 11기가 조사되었는데 단독으로 확인된 4기 이외에는 주 매장시설을 토광묘로 하는 고분의 추가묘의 성격으로 안치된 것들로 토광묘와 동일한 분구 내에 공존한다. 묘광은 옹관의 합구 형태에 맞게 장타원형의 묘광을 굴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을 기준으로 평행하는 경우와 직교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동-서 방향 5기와 남-북 방향 6기로 장축방향의 선호와 관련한 우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심매장시설의 장축방향 또는 주구의 장축방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습조사가 이루어진 월송리 조산고분<sup>20)</sup>은 평석천정의 맞조림식에 해당하며, 연도가 서향이고 석실이 지상식이다. 유물은 백제 토기를 비롯하여 마구류·무기류·장신구 등 196점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축조연대는 6세기 초로 비정하고 있다. 한편 삼산면 원진리 농암마을에서 2개소, 봉학리 신금마을에서 1개소의 옹관고분이 수습조사 되었다<sup>21)</sup>. 이들 옹관유구는 분구가 크지 않은 소형분으로 옹관의 형태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암B고분이나 신금고분의 옹관은 전용옹관으로 대옹의 저부에 원공을 뚫고 있다. 특히 이 전용옹은 거치문이 생략된 채 구연부까지 격자문이 타날되고 기벽의 두께가 구연부에서 저부까지 차이 없이 고르다. 유물은 컵형토기, 유리소옥, 철정, 철부, 환두대도, 소호, 원저호,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구들은 4세기 전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평면형태가 장고형인 방산리 장고봉고분은 분구 길이 76m, 높이 10m로 시굴조사를 통해 원형부 서쪽에서 횡혈식석실 1기를 확인하였다. 석실은 지상식이며, 玄室은 평면 長方形의 양벽조임식이고 그 내부는 붉은 안료를 칠하였다<sup>22)</sup>. 용두리고분은 발굴조사를 통해 원형부 중앙에서 횡혈식석실 1기를 확인하였다. 석실은 지상식이며 현실은 평면 장방형의 양벽조임식이다. 석실 내부에서는 鉢形器臺, 蓋杯片, 철촉, 화살통꾸미개,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sup>23)</sup>. 2008년 동신대학교문

17)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향산리 분토유적』Ⅰ·Ⅱ.

18) 이정호·홍민영, 2007, 『해남 옥천 성산 만의총 시굴조사보고서』, 동신대학교박물관.

19)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향산리 분토유적』Ⅰ·Ⅱ.

20) 서성훈·성낙준, 1985,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국립광주박물관.

21) 성낙준·신상효, 1989, 「해남 원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국립광주박물관.

22) 은화수·최상종, 2001,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옥천면 만의총 1호분과 3호분이 발굴 조사되었다. 1호분은 5세기 후반~6세기 초기 삼국시대 고분으로 조성된 후, 정유재란 당시 희생된 순절의병을 재차 매장한 복합유적이다. 또한 3호분은 조사를 통하여 대형 봉분 속에 横口式石室이 축조된 무덤 자료를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횡구식석실분의 구조와 葬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sup>24)</sup>. 축조연대는 출토된 개배와 단경호 등으로 보아 5세기 늦어도 5세기 후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2009년 발굴 조사된 신월리 방대형고분<sup>25)</sup>은 최근까지 해남반도 일원에서 조사된 고분과 달리 분구조성방법과 매장시설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구전면에 층석시설을 한 점과, 매장시설 축조 시 대형판석재를 사용한 점이다. 이는 조산고분(횡혈식석실), 장고봉고분(횡혈식석실), 용운고분(2호 수혈식석실, 3호 횡구식석실), 용두리고분(횡혈식석실), 만의총고분(지상식 석곽) 등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진 외도고분의 매장시설이 대형판석을 사용하여 석실을 축조하고 있어 상호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선사·고대유적 외에도 화원면과 산이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청자가마터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sup>26)</sup>. 이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산이면 진산리 청자요지가 있다<sup>27)</sup>. 발굴결과 청자 요지 1기를 확인하였는데, 굴뚝부에서 봉통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이다. 가마의 방향은 거의 동-서이며, 굴뚝부를 동쪽에 두고 있는 登窯이다. 가마의 총 길이는 24.5m이며, 벽 너비 120~130cm, 바닥 너비 100~120cm이다. 유물은 총 760여 점이 출토되었으며 접시류와 대접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마가 만들어진 시기는 11세기 전반경으로 비정하고 있다. 또한 백야리에서는 조선중기에 운영된 옹기가마 1기와 공방지, 그리고 조선후기에 운영된 기와가마 1기가 조사되었으며, 오시골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운영된 도기가마 2기가 조사되었다<sup>28)</sup>. 백야리 가마터에서 조사된 2기의 가마 중 1호가마는 생토인 풍화암반층을 파고 축조한 반지하식의 등요이다. 가마 내부 함몰층에서 옹기와 도침이 출토되어 옹기를 번조하였던 가마로 판명되었다. 가마바닥과 가마벽을 1차례에 걸쳐 보수하여 사용하였다. 유물은 도침과 옹기편, 백자발 등이 출토되었으며 운영시기는 17~18세기 경으로 판단되며, 조선전기 옹기가마인 청도 순지리와 나주 우산리 옹기가마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조선전기 옹기제작 전통이 조선중기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시골에서 조사된 가마는 2기 모두 생토면과 기반암 위에 점토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1호가마는

23) 국립광주박물관, 2011, 『해남 용두리고분』.

24) 국립광주박물관, 2009, 『해남 만의총 3호분』.

25) 목포대학교박물관, 2010, 『해남 신월리 방대형고분』.

26) 최성락·한성욱·송태갑, 2002, 『해남의 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27) 최성락·최건, 1992,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2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해남 백야리 요지』.

가마 개축 시 석재를 가마내부에 보강하여 재조성하였다. 2기 모두 소성실의 아래쪽으로는 넓게 재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연질과 경질의 호.완.뚜껑.기와류 등이며 영암 구림리, 공주 가교리 유적 출토유물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가마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까지 해남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유적들이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된 것은 남해로 진입하는 영산강의 하류지역에 위치하며 농업과 어업을 겸한 지역으로 바다와 넓은 평야에서 풍부한 식량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어서 일찍부터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 위치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역사적 배경

해남에 대한 참고할만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 海南縣 古蹟條의 玉山廢縣 내용과 대체로 관찬 지지류가 주로 거론된다. 특이할만한 점은 고대에 해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영산강유역의 墓制와는 다른 마한 시대로 비정되는 3~5세기 묘제의 형태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 세력을 마한세력과 별개의 독립된 세력<sup>29)</sup>으로 보고 해남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했던 연맹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체제 하에서 존립했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해남에 대한 행정적 변천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백제시대로 소급될 수 있다. 백제시대에 해남지역에는 색금현, 고서이현, 황술현이 있었다.<sup>30)</sup> 특히 고대 색금현의 현터는 현산면 고현리, 고서이현의 고을 터는 마산면 장촌리, 황술현의 고을터는 문내면 고당리로 비정된다.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송지면 일대, 북일면 일대, 해남읍, 삼산면 일대 등도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뒤에 이곳으로 추정되는 향·소·부곡의 지명<sup>31)</sup>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일신라때 색금현을 침명(투빈)현, 황술현을 황원현, 고서이현을 고(동)안현으로 고쳐

29) 용관고분사회의 공간적 범위를 서부전남지역일대로, 시간적 범위를 3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설정하고 타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용관고분’이라는 독특한 묘제가 영산강 유역일대 널리 분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를 ‘용관고분사회’라 명명하고 여기에 백포만 일대가 ‘용관고분사회’의 외향적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姜鳳龍, 1999, 「3~5세기 영산강유역 ‘甕棺古墳社會’와 그 성격」, 『歷史教育』69.

30) 색금현은 오늘날 현산면·화산면일대, 고서이현은 오늘날 산이면·마산면·계곡면일대, 황술현은 오늘날 화원면·황산면·문내면 일대이다.

31) 송지면 일대가 송정부곡, 삼산면 일대가 사라향, 옥천면 일대가 냉정부곡, 팔마부곡 등의 지명이 보이는데 고려 중기이후 해체되기 시작하여 조선 초에 소멸되어 버린다. 이에 대한 연구 중 향·부곡 발생시기에 대한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임건상, 1997, 『조선부곡제에 관한 연구』, 백산자료원

박종기, 1990, 『고려시대 부곡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생기원에 대한 연구논문은

이우성, 1991, 「고려시기 밀양 고매부곡에 대하여-부곡재발생형성에 관한 일시론」, 『진단학보』 56.

김용덕, 1980, 「부곡의 규모 및 부곡인의 신분에 대하여」, 상·하 『역사학보』88 등이 있다



양무군의 영현<sup>32)</sup>으로 했다.<sup>33)</sup> 특히 이 변화시기에 양무군이 해남·강진을 통할하는 大郡으로 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비슷한 시기 세력과 영역을 확장한 군으로 무안군과 반남군을 들 수 있는데 양무군세가 확대된 것을 보면 본 논문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서남부를 경유하는 해로가 주목된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백제에서 통일신라 때까지 명칭상의 변화는 있지만 지도에 보이는 침명현, 황원현, 고안현의 영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주변에 고대부터 세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향·소·부곡을 표시하였다. 즉 명암으로 나타낸 세 지역이 기록상에 나타난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오늘날 해남군 행정구역이다.

고려시대에는 침명(투빈)현을 해남현으로 고(동)안현을 죽산현으로, 황원현을 황원군<sup>34)</sup>으로 바꾸어 여전히 양무군 관할로 하였다. 통일신라때 사라향을 옥산현,<sup>35)</sup> 냉천부곡을 옥천현<sup>36)</sup>으로 바꿔 영암군의 속현으로 하였는데 바로 신라 사라향지역이 고려 때 옥산현으로 바꾸어 영암군의 속현으로 삼았고 1412년(태종 12)에 해진현의 치소가 되었다. 지방관제개정에 따라 황원현·죽산현이 영광(암)군 관할이 되었고 뒤에 해남현에 監務를 두었다.

해남지역의 고려 또는 그 이전의 지방행정편제를 알 수 있는 향·소·부곡은 다음과 같다. 북평향은 해남현 남쪽 60리,<sup>37)</sup> 북일면 신월리 성마산 성지일대가 그 중심지로 추정된다. 마봉소는 해남현 남쪽 60리,<sup>38)</sup> 熊山所·柵山所·大上伊所·仇良山所·德池(古名 德津)所는 현재 정확한 위치 및 성격을 알 수 없다. 귀인부곡은 영암군 남쪽 90리 지점이나 역시 위치는 알 수 없다. 심정부곡은 영암군 남쪽 130리,<sup>39)</sup> 송정부곡은 영암군 남쪽 110리,<sup>40)</sup> 송지부곡은 해남현 남쪽 60리,<sup>41)</sup> 팔마부곡은 해남현 북쪽 20리,<sup>42)</sup> 신갈부곡은 해남현 동쪽 20리,<sup>43)</sup>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현재의 해남지방이 백제 이래 고려시대까지 분립된 행정체계<sup>44)</sup>를 청산하고 하나의 영

32) 『삼국사기』신라본기 경덕왕 16(757년)

33) 통일신라의 사라향이 고려에 옥산현으로 바뀐다. 현재의 삼산면 상가리의 성피산성을 지나 해남읍까지 남연리부터 삼산면 창리 사이의 옥녀봉 성지가 그 유적인데 옥녀봉성은 삼한·백제까지 소급하는 유적이다.

34) 황원현이 황원군으로 격상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말선초에 영암군이 영속된 나주목의 급성장과 관련해서 고려건국의 친왕건적 성향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35) 현재의 해남읍 삼산면 일원, 치소는 해남군 남 10리인 해남읍 계동리 성피산토성이다.

36) 영암군의 냉천부곡으로 고려 때 옥천현이 되어 영암군의 속현이 되었다. 1448년(세종 30) 해남현에 합해진다.

37) 현재의 해남군 북일면 일대에 해당된다.

38) 현재의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일대이다.

39) 현재의 해남군 송지면 심정 일대이다.

40) 현재의 해남군 송지면 송종 일대이다.

41) 현재의 해남군 현산면 월송 일대이다.

42) 현재의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부근이다.

43) 현재의 해남군 옥천면 흑천리이다.

44) 고해남현·죽산현·황원군을 지칭한다.

역으로 묶어지는 것은 조선조에 이르러서이다. 물론 조선초기의 해남영역이 현재의 영역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송지 일대와 계곡·옥천·북일·북평지역은 영암에 속해있었기 때문이다. 해남은 여말선초에 서해연안 도서에 대한 중앙의 공도정책에 의해 조선 1409년(태종 9)에 해남현 죽산현이 인근 진도현과 합해져 해진군이 되면서 영암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녹산역 옛 성을 수축하여 읍을 옮기게 된다. 1412년(태종 12)에 녹산역 옛터에 있던 치소를 영암군 속현인 옥산현(삼산면 계동)으로 옮긴다. 1437년(세종 19)이 되면 해진현을 다시 나누어 해남현을 복구하고 현재의 읍터로 옮기고 縣監이 파견된다. 1447년(세종 29)에 영암군에 속한 신갈부곡이 해남현으로 들어오고, 1448년(세종 30)에 영암군에 속한 옥천현·팔마부곡·황원현(화원·황산·문내면 일원)이 해남현으로 들어왔다. 특히 황원현과 관련하여 영암에 속한 황원목장이거리가 멀고 매년 봄, 가을 點馬하러 오는 관리 대접의 폐단이 있으므로 해남으로 넘겨주자는 논의가 있어 1447년(세종 20)에 옥천·팔마까지 한꺼번에 넘겨주었다.<sup>45)</sup> 오늘날의 해남경역을 기준으로 볼 때 해남 읍성을 위시한 부분이 조선시대(1430~1446년) 해남 경역이고 그 주변 일대가 영암이나 진도의 越境地로 1446년까지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46년(세조 10)년 水軍處置使營이 節度使營으로 승격되고, 1479년(성종 10)에 여수에 또 하나의 水營이 생기면서 右水營<sup>46)</sup>이 되었다가 1895년(고종 32) 군제개혁 때 폐지된다. 이후의 해남현의 행정구역은 『여지도서』(1759년)에 따르면 당시 16면을 관할하였고, 『호구총수』(1789년)에 따르면 16면<sup>47)</sup> 346리를 관할하였다.

1895년 5월 1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전국이 23부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나주부 관할 해남군이 되고, 그 내용은 현일·현이면이 군일·군이면으로, 황일면을 황원면으로, 황이면을 문내면으로 바꾸었다. 같은 해 면·결·호수의 다수에 따라 각 군의 등급을 정하였는데 해남군은 2등 군이 되었다.

대한제국시기인 1897년 2월 3일에 신설한 완도군에 해남군의 도서지방<sup>48)</sup>을 넘겨주고, 같은 해 8월 4일에는 전국 13도제 실시에 따라 23부제가 폐지되고 전라남도의 2등 군

45)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해진군의 속현으로 珍山縣이 있으나 전후 연혁은 알 수 없다. 현재의 산이면 진산·대진리 일대의 珍山古城이 이때의 유적으로 보이며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듯 하다.

46) 당시 우수영은 屬邑이 나주·영암·진도·영광·해남·부안·함평 등이고, 屬鎭이 법성포·군산·고군산·위도·임치도·고금도·가리포·남도포·금갑도·어란포·이진·신지도·마도·목포·다경포·지도·임자도·검모포이다.

47) 현일면, 현이면, 장서면, 장목면, 녹산면, 화일면, 화이면, 현산면, 은소면, 황일면, 황이면, 비곡면, 청계면, 마포면, 산일면, 산이면, 총 16개면으로 구성되고, 『輿地圖書』에도 장목면이 장동면으로 기록된 것 외에는 동일하다.

48) 각 地志上에 나타난 해남의 도서수와 명칭:

고려지(3) : 삼내도, 죽도, 노도(황원군 소속으로 영암군에 속했다)(1453)

세종실록(2) : 임치도, 주자도(1454)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도(4) : 부소도, 마뢰도, 죽도, 완도(1530, 17C중엽)

여지도서(2) : 완도, 연자도(1759)

호구총수(5) : 부소도, 거차도, 마로도, 등지도, 남의도(1789)

대동지지(9) : 부소도, 마로도, 입암도, 등지도, 소금도, 죽도, 연자도, 반도, 양도(1864)

이 되고 1906년 9월 24일에 영암군의 옥천면·송지시면·송지종면·북평시면·북평종면과 진도군의 삼촌면이 해남군의 행정구역이 된다.

1914년 4월 1일 해남은 대대적인 행정 개편이 이루어진다. 군면폐합과 함께 완도·영암·강진 지역으로 해남과 인접한 지역을 병합 1읍 13개면으로 하였다. 이 13개면은 북평·북일면의 분면을 빼면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조사지역인 북평면 지역은 본래 백제의 새금현, 신라의 양무현[강진군]에 속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영암군에 속하여 달랑진이라 칭하고, 방어진지로 전선대장이 주재하여 항구에 전선을 계박(繫泊)하고 이진만호와 합세하여 외적과 내적을 방어하는 동시에 제주 군마를 검수하였다. 후에 후리창 혹은 고달도라 개칭하였다가, 1405년에 북시북종면으로 개칭하고, 세창의 소재지로 북평시면, 북평종면, 송지시면, 송지종면, 옥천시면, 옥천종면 등 6면의 국세미를 거출하였다.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영암군의 월경지인 북평시면·북평종면·강진군 백도면(白道面)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는데, 1906년(광무 10) 영암군과 강진군에서 떨어져 나와 해남군에 편제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북평시면, 북평종면, 백도면 일부를 합하여 해남군 북평면으로 개설되었다.

### 3. 이진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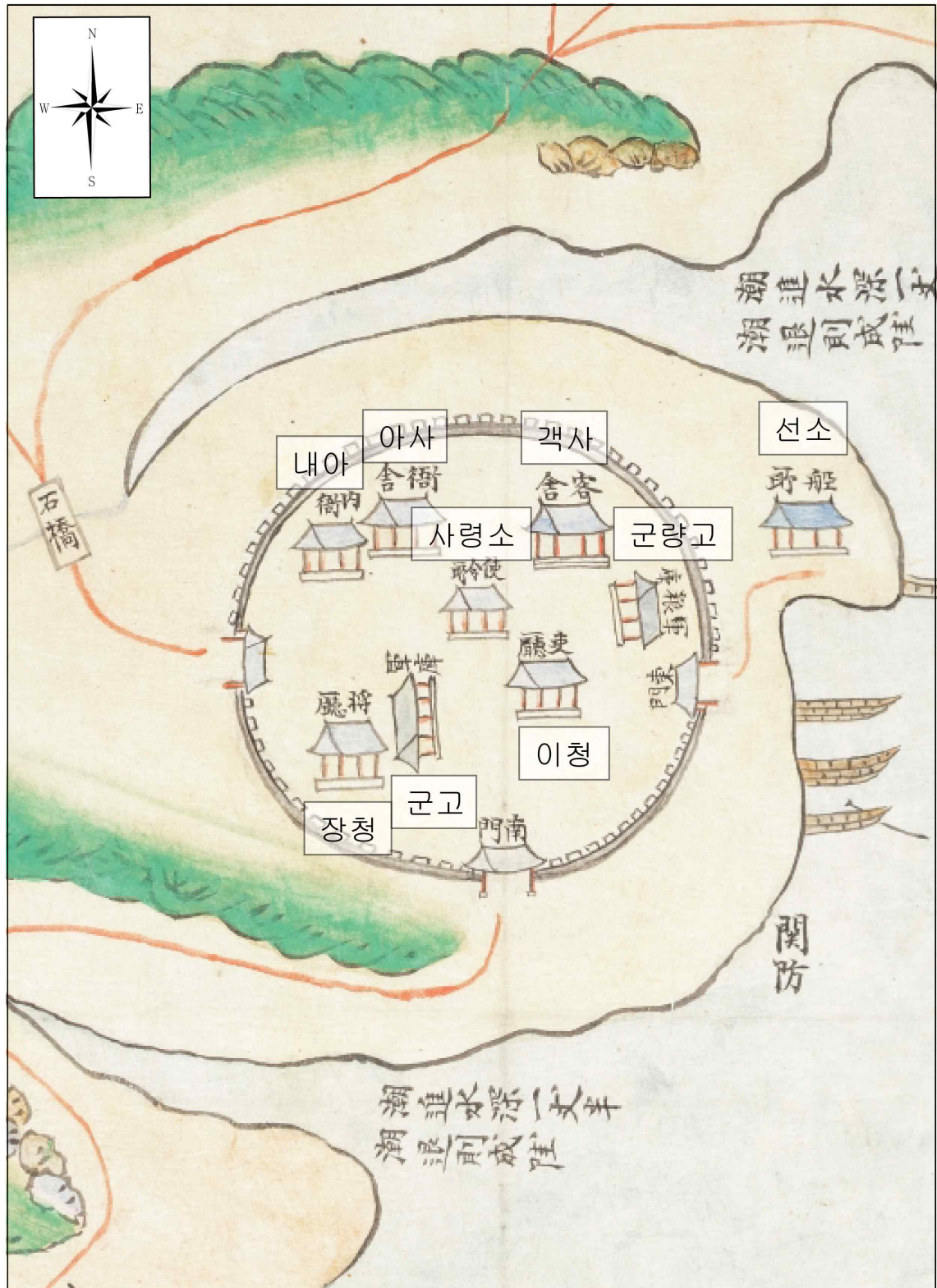
이진진의 설치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55년(명종 34) 을묘왜변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1588년(선조 21)에 진을 세우고 1627년(인조 5)에 만호진으로 승격되었는데 이 당시에 진성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이진진은 1588년 진을 세운 후 달랑진 사변 후인 1597년 종9품의 권관진이 설치되었다가 1627년 만호진으로 승격되었다. 정유왜란 무렵(1597년 8월 20-24일) 이순신 장군이 진도 벽파진으로 이동 중 착란증세로 머무른 곳이다.

1627년에는 만호진으로 승격되어 병선 10여 척, 정규군 200여 명이 주둔했다. 『여지도서』의 기록에 보면 이진진은 군 남쪽 120리에 있는 둘레 1,470척, 높이 8척의 석성으로 쌓았으며, 우물 2개가 있고, 종 4품의 수군만호 밑에 군관 18명, 관리 18명, 지인 5명, 사령 37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남읍지』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성 2척과 대변군관 12명, 진리 18명, 사령 6명, 군뢰(單牢) 2명, 방군 271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문화유적 총람』에는 둘레 2.5km의 성지로 1648년(인조 26)에 만호(각 진에 배치한 종4품의 무관직)를 두어 성을 세웠고, 성 주위로 바다 호수를 만들어 왜군이 침입을 막았다고 한다.

또 이진은 제주도 출입 통제와 말을 수송하는 곳이었다. 마을 안에 수군만호비 4기가 있다고 전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이진진은 한양에서 950리 위치에 있으며, 성에는 해월루가 있다. 제주로 들어갈 사람은 모두 여기에서 배로 떠난다”는 기록이 있

다.



도면 4. 1872년 지방도-영암군 이진진(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진진성의 내부시설에 대한 고문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동국여지승람』 비고 조에

는 이창이 이진에 있고, 이진 남쪽에 해월루가 있다고 하였다. 『대동지지』에 해월루는 제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여기에서 배를 탔다고 한다. 『이진진지급사례성책』에는 성문은 동문, 서문, 남문의 3곳인데 오래되어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서원이나 사당, 누정, 큰 숲이 없다고 했다. 또한 진의 민호는 90호라고 했다. 기타 건물로는 객사 3칸, 장청 1동, 사령청 1동, 군기고 1동, 군향고 1동 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진성의 형태와 건물을 유추할 수 있는 지도로는 『여지도서(1765)』, 『영암군 나주진관도』, 『1872년 지방지도』 「영암군 이진진」, 『영암군 이진진지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세밀하게 표현된 『1872년 지방지도』 「영암군 이진진」에는 동그란 성에 동·서·남문이 그려져 있는데 단칸집이다. 동문은 우진각이고 나머지는 합각지붕이다. 성은 여장이 전체적으로 둘러져있다. 성안의 건물은 뒤로 서쪽에 아사가 배치되고, 그 서쪽으로 조금 아래에 내아가 있다. 객사는 아사 왼쪽에 배치되어 그 앞으로 성 중앙에 사령청이, 그 앞으로 약간 왼쪽으로 비껴서 이청이 배치되는데 모두 3칸 집이며 남향한 합각지붕으로 보인다. 군량고는 동문 앞에 서향하여 3칸 맞배집으로, 군고는 4칸 맞배집으로 동향하여 직각하여 배치된다. 군기고 서쪽으로 3칸 장청이 놓이는데, 군기고와 한 마당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1872년 지방지도』 「영암군 이진진」에는 동문 밖 선창가에는 선소가 그려져 있는데 3칸의 합각지붕이다. 그 앞바다에는 동문 앞에 3척의 배가 선소 앞에 1척의 배가 그려져 있다. 서문 앞에는 석교가 그려져 있고, 현재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진진은 북이나 남쪽 바다에 조수가 들어오면 수심이 한 장 반이요 조수가 물러나면 갯벌을 이룬다고 했다. 현재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다. 선소지역은 동문지 바로 앞 해안가로 추정되며, 1895년에 폐진되었다.

이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성곽의 서·북·남쪽은 잘 남아 있지만, 동쪽은 도로가 개설되고 민가들이 성벽에 입지하여 일부 구간만 유구가 남아있다. 협축의 성벽쌓기법은 성벽 중간 부분까지는 135 x 85cm 정도의 큰 돌로 쌓았고, 그 상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돌로 쌓았다. 폭은 성벽 하부가 가장 넓고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며, 서쪽 0.9m, 동북쪽 2.4m, 남서쪽 1~2.1m 정도로 조사되었다. 성벽의 둘레는 길이 1,110m, 동·서문지 사이 186m, 동·서 최대 폭 270m, 남·북 최대 폭 420m 이다.

수구는 서문지에서 남문지로 가기 전 현재 밭 사이의 배수로로 마을 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수구 위는 성벽으로 되어 있다. 서문지의 웅성은 잔존 상태가 양호하다. 동문지는 웅성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성벽은 편축성과 협축성으로 되어 있으며, 동문지에서 북측으로 가다 외부성벽에 여장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 주위에는 백자편과 각종 유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4기의 만호비는 이진초등학교 입구에 있다.









### Ⅲ. 조사내용

#### 1. 조사지역

현장조사는 본격적인 현장조사 실시 이전에 지표조사 결과와 그 주변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의 자료를 확인하여 자연 지리적·인문 지리적·역사 고고학적 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227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2,567㎡이다. 조사 대상지역에 10×10m 그리드 내 탐색트렌치 5개를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부존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트렌치는 건물이 들어서는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표토를 제거하고, 층위 상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의 노출을 파악해 가며 확인하였다. 체성부 내성에 성벽이 파괴되지 않게 유의하며 굴착하여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서문지에서 성벽 기저부로 추정되는 적석시설과 성벽과 관련된 건물지 바닥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유물이 함께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진 1. 이진성지 서문 웅성부(1969년)



사진 2. 이진성지 서문 웅성부(1972년)



사진 3. 이진성지 서문 웅성부(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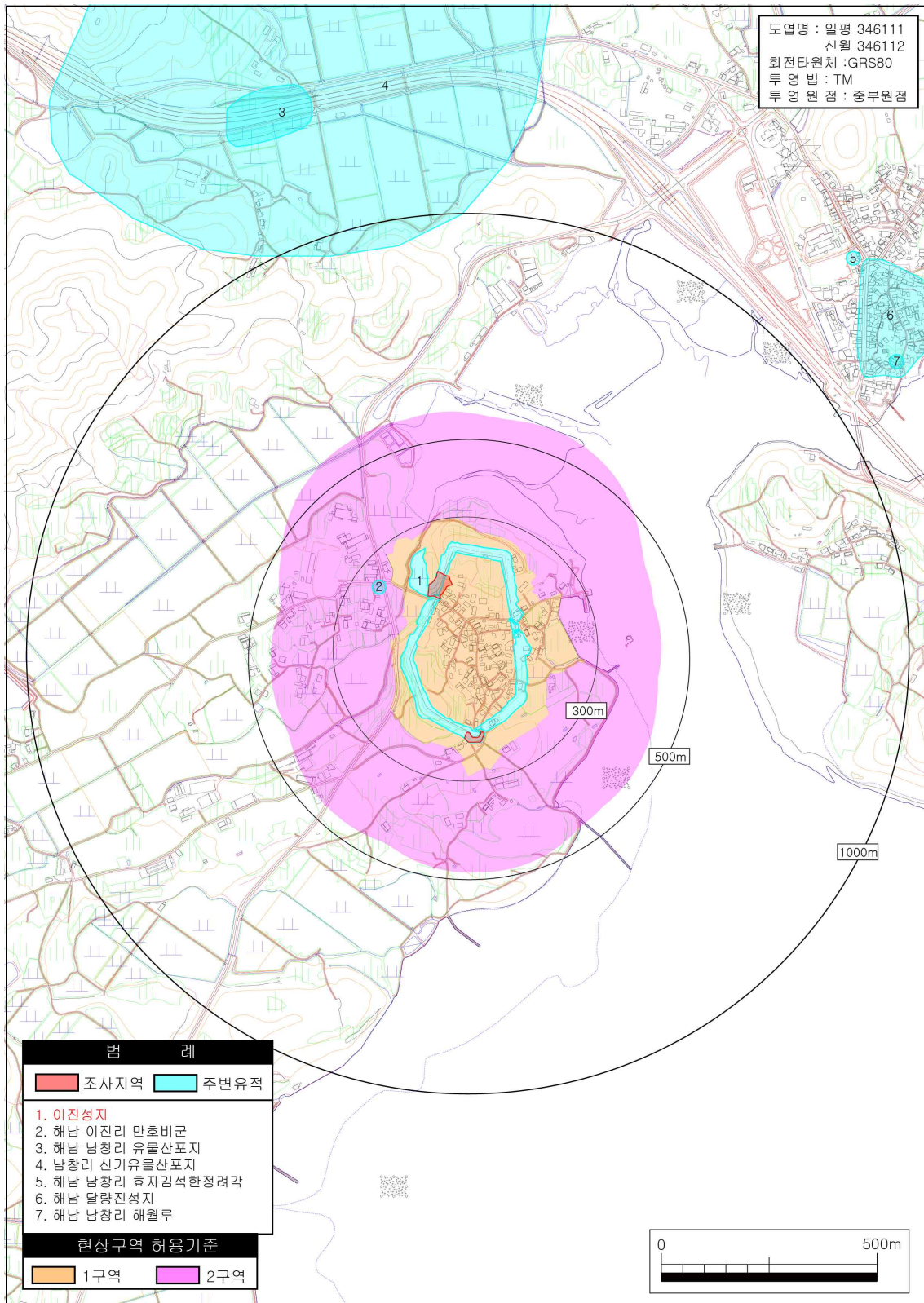
사진 4. 이진성지 서문 웅성부(1987년)





도면 7. 조사지역 위성도(출처: kakao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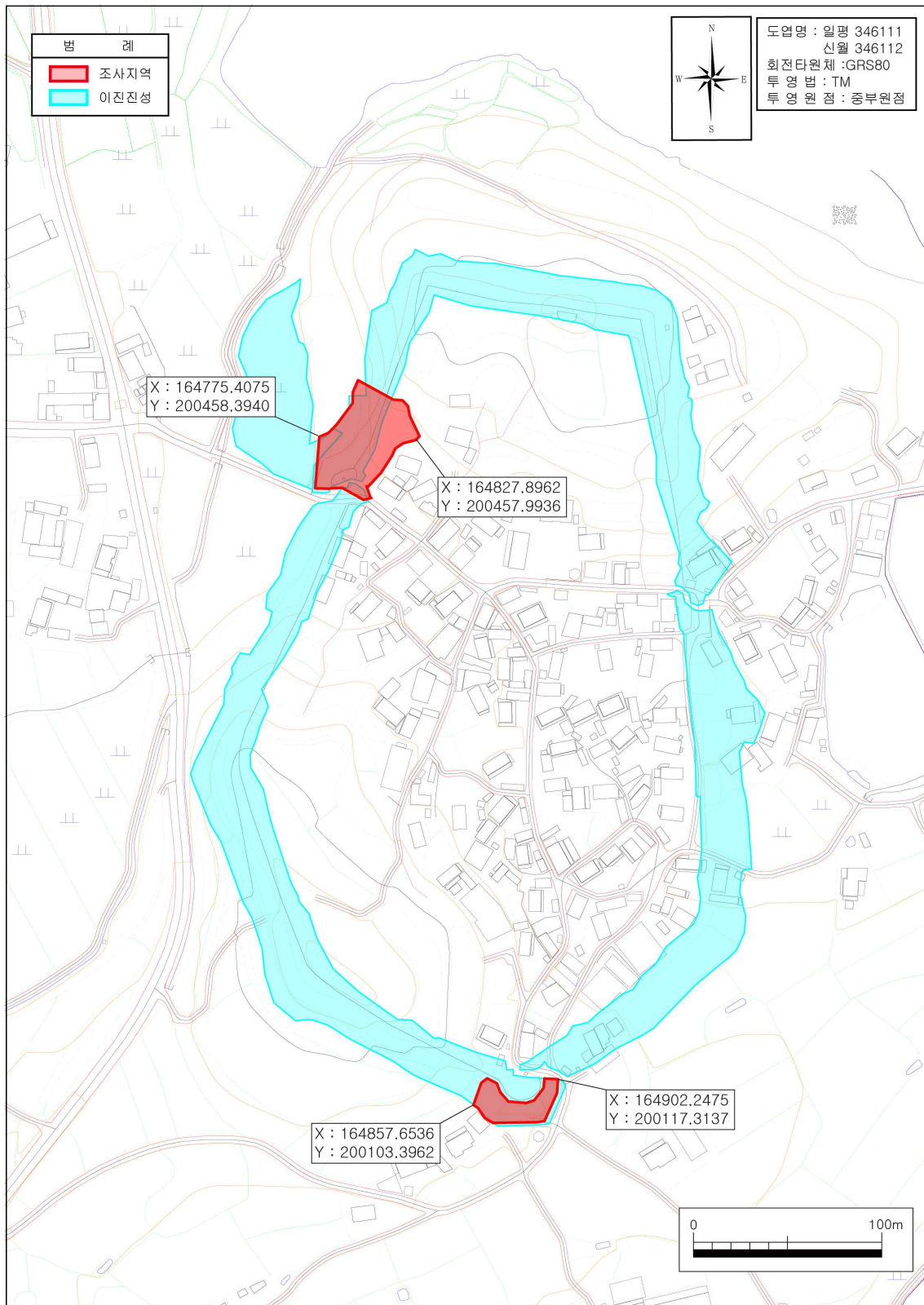
도면 8. 조사지역 위치와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2. 조사방법

조사에 앞서 각종 고문헌자료와 고지도, 근현대 지도와 항공사진 등을 비교하고, 현장답사와 탐문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아울러 적석시설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적절한 제토방법, 탐색트렌치의 설치 위치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사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10×10m의 일정한 그리드와 기준점을 설정하고 조사구역 전체를 제토 하였다.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서문지 부분은 해남군에서 일부분 성벽을 복원한 것으로 성벽 아래 기초부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토가 확인되는 면까지 굴삭기로 제토한 후 수작업으로 유구의 노출을 진행하였다.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반층까지 굴착하여 매장문화재의 유무, 층위양상 등을 확인하였다.

- 1) 조사 전 주변유적을 검토 후 조사 계획을 확립, 조사 전 상황 기록.
- 2) 조사 지형에 맞춰 10×10m 격자형 그리드 구획, 기준점 설치.
- 3) 서문지와 남문지 옹성내부와 문루가 위치했던 곳을 중심으로 조사구역 조사트렌치를 제토. 유구의 성격이 불명확하거나 넓은 범위를 굴착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pit를 설치하여 조사.
- 4)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자연층이 확인되는 깊이까지 굴착하되 내부 여건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 굴착.
- 5) 전체적인 지형정보, 층위와 유구의 관계, 확인되는 유구간의 상대층위, 유구의 시대 및 성격 등에 대한 조사과정과 정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
- 6)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 완료 후 조사지역에 대한 현황도 작성 및 측량작업 실시.



도면 9. 발굴조사 조사 위치 및 좌표도(1/5,000)



### 3. 조사현황

현장조사는 조사지역 내 지형여건 및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면적 2,563m<sup>2</sup>에 맞추어 조사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내·외벽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기저부 양상을 파악하려 하였다. 총 트렌치 5개를 설치하였으며, 조사는 사업부지 내 유구 잔존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하강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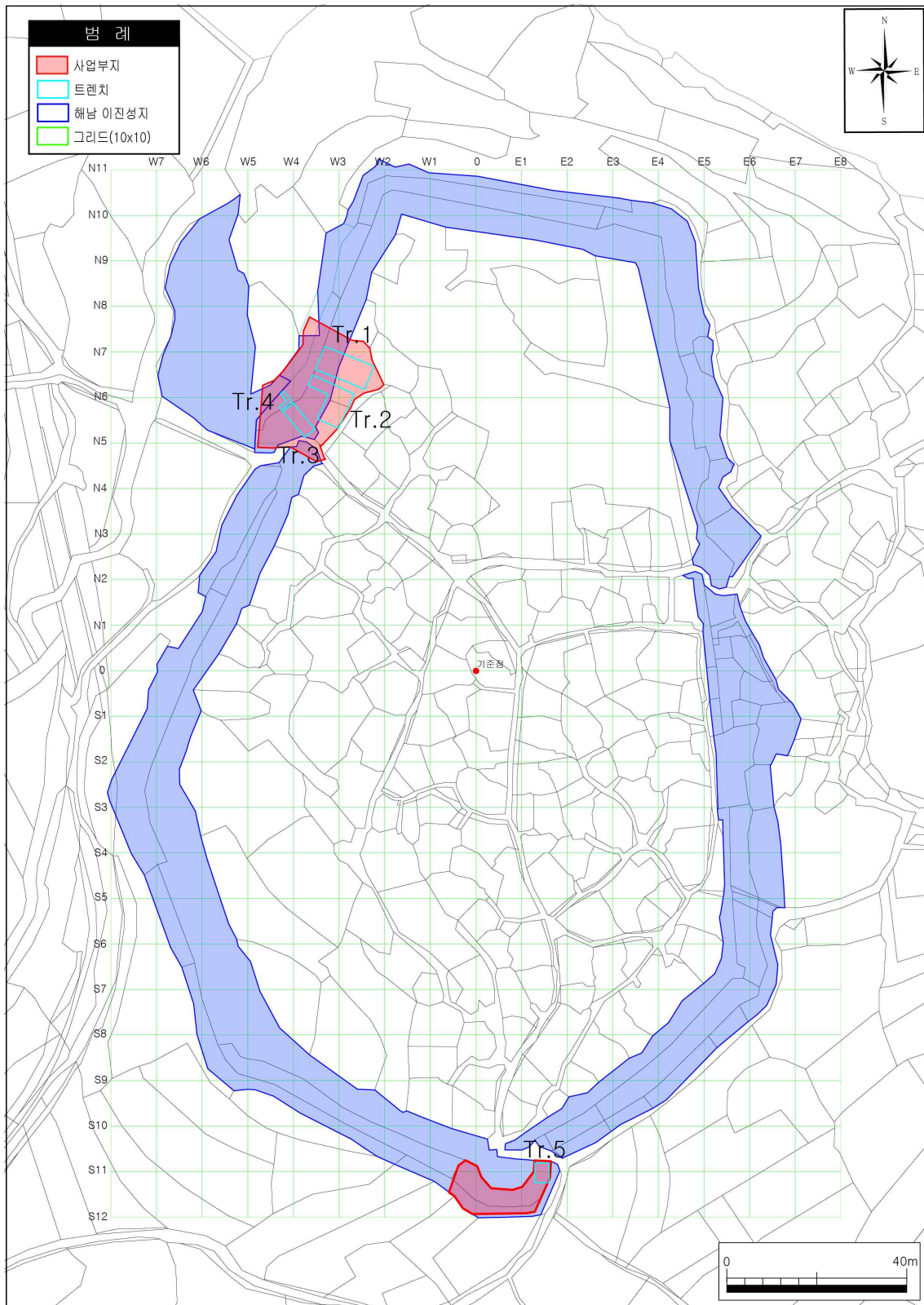
#### 토층양상

조사구역에서 나타나는 토층양상은 3개 층으로 구분되며, I 층-갈색사질점토(표토층) → II 층-암갈색사질점토(이전 건물이 들어선 교란층) → III 층-명갈색사질점토(바닥·성토층)로 확인하였다.

I 층은 표토층으로 경작지로 사용되며 형성된 것으로 최근까지 밭으로 사용되었다. II 층은 교란층으로 밭으로 사용되기 이전 현대식 건물이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암갈색사질점토 사이에 시멘트와 슬레이트(slate) 등이 섞여있어 현대식 건물이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III 층은 바닥층으로 성벽과 관련된 성토층 위에 지대석 및 할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혹은 조선시대 건물이 위치한 건물지 바닥으로 생각된다. 조사지역 대표층위는 트렌치 3 양상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조사 시 확인된 유물이 조선시대 유물이 많아 유구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서문 주변 기저부 시설 확인 및 성의 설치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도면 10. 조사지역 기준토층(Tr.3)



도면 11. 조사지역 트렌치 배치도



### 3-1. 서문지

#### 1-1) Tr. 1

트렌치 1은 서문지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장축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형태는 제형(梯形)이다. 크기는 5×15m이며 높이는 30cm이다.

퇴적양상은 3단계로 나누어지며, I 층 표토층은 갈색사질점토(Hue 7.5YR 5/4)으로 최근 발경작을 하며 형성되었다. II 층은 암갈색사질점토(Hue 7.5YR 3/4)로 퇴적층이다. 두께는 약 25cm이며 사면퇴적이 진행되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III 층은 바닥층으로 등색사질점토(Hue 7.5YR 7/6)이며, 성벽을 다시 쌓으며 성토한 층이 확인되었다. 조사 시 초석 1기와 수혈이 확인되었으며, 기와편과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사진 5. 서문지 트렌치 1 조사 후 전경



사진 6. 서문지 트렌치 1 내벽 기저부



사진 7. 서문지 트렌치 1 토층양상



1-2) Tr. 2

트렌치 2는 서문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장축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형태는 ‘ㄱ’자형이다. 크기는 16×10m이며 높이는 40cm이다.

퇴적양상은 트렌치 1과 같은 양상으로, I 층 표토층으로 갈색사질점토(Hue 7.5YR 5/4)으로 최근 발경작을 하며 형성되었다. II 층은 암갈색사질점토(Hue 7.5YR 3/4)로 퇴적층이다. 두께는 약 15cm이며 사면퇴적이 진행되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III 층은 바닥층으로 등색사질점토(Hue 7.5YR 7/6)이며, 성벽을 새로 쌓을 때 새로 성토된 층도 함께 확인되었다. 성벽관련 시설과 수혈이 확인되었으며, 기와편과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사진 8. 서문지 트렌치 2 조사 후 전경



사진 9. 서문지 트렌치 2 내벽 기저부



사진 10. 서문지 트렌치 2 토층양상



### 1-3) Tr. 3

트렌치 3은 서문지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장축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형태는 제형(梯形)이다. 크기는 3×7m이며 높이는 50cm이다.

퇴적양상은 3단계로 나누어지며, I 층은 표토층은 갈색사질점토(Hue 7.5YR 5/4)으로 최근 발경작을 하며 형성되었다. II 층은 암갈색사질점토(Hue 7.5YR 3/4)로 퇴적층이다. 두께는 약 35cm이며 사면퇴적이 진행되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III 층은 바닥층으로 명갈색사질점토(Hue 7.5YR 5/6)이며, 복원된 성벽에서 약 30~50cm 안쪽으로 원성벽의 기저부로 보이는 석렬과 추정지대석이 확인되어 성벽복원 시 원성벽 기저부에서 외벽쪽으로 약 50cm 이격 후 복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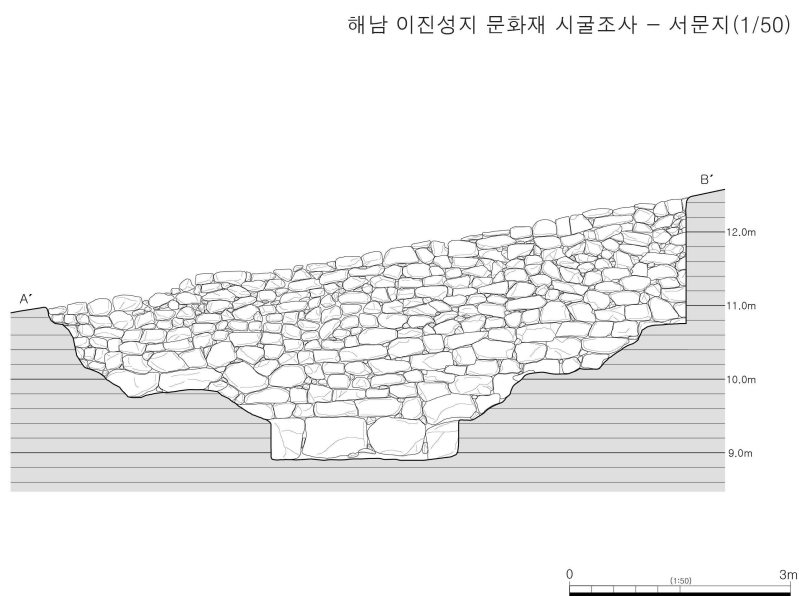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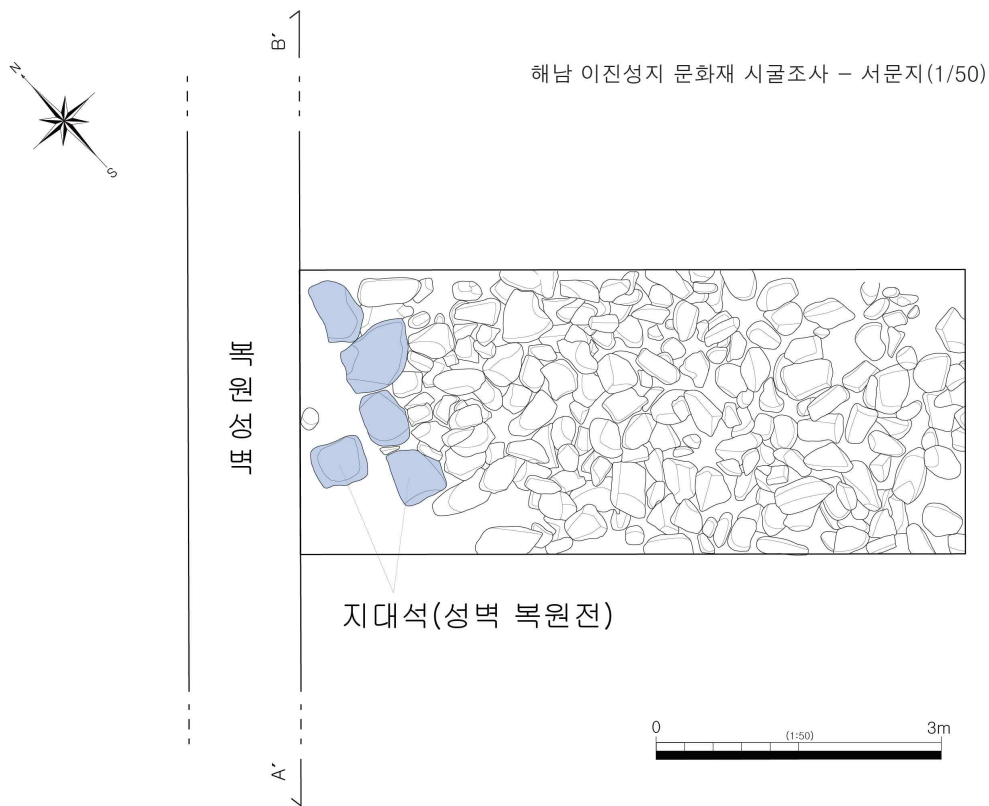
사진 11. 서문지 트렌치 3 조사 후 전경



사진 12. 서문지 트렌치 3 내벽 기저부



사진 13. 서문지 트렌치 3 토층양상



도면 12. 서문지(Tr.3) 평면도(上)와 입면도(下)



#### 1-4) Tr. 4

트렌치 4는 서문지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장축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형태는 ‘ㄱ’자형이다. 크기는 0.5×5m이며 높이는 30cm이다.

퇴적양상은 3단계로 나누어지며, I 층은 표토층은 갈색사질점토(Hue 7.5YR 5/4)으로 최근 발경작을 하며 형성되었다. II 층은 흑갈색사질점토(Hue 7.5YR 3/2)로 퇴적층이다. 두께는 약 20cm이며 자연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III 층은 바닥층으로 등색사질점토(Hue 7.5YR 6/4)이며, 새로 성벽을 쌓기 전 밭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지형의 훼손이 일어났으며, 외벽 아래 박석이나 지대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변에서 조선시대 자기류가 일부 확인되었다.



사진 14. 서문지 트렌치 4 조사 후 전경



사진 15. 서문지 트렌치 4 외벽 기저부



사진 16. 서문지 트렌치 4 외벽할석



### 3-2. 남문지

#### 2-1) Tr. 1

트렌치 1은 남문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장축은 북-남 방향으로 형태는 직사각형이다. 크기는 2×6m이며 높이는 50cm이다.

퇴적양상은 3단계로 나누어지며, I 층은 표토층은 갈색사질점토(Hue 7.5YR 4/4)으로 최근 발경작을 하며 형성되었다. II 층은 등색사질점토(Hue 7.5YR 6/6)로 퇴적층이다. 두께는 약 25cm이며 경작지로 사용하기 위해 경지정리를 하며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III 층은 바닥층으로 갈색사질점토(Hue 7.5YR 4/6)이며, 바닥층으로 기저부 지대석이 확인되었다.



사진 17. 남문지 트렌치 1 조사 후 전경



사진 18. 남문지 트렌치 1 외벽 기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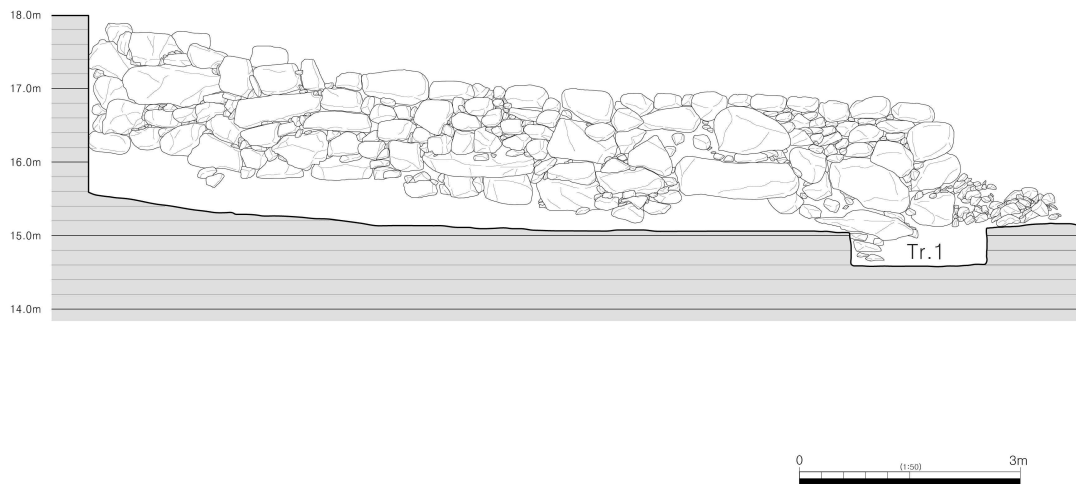


사진 19. 남문지 트렌치 1 토층양상





해남 이진성지 문화재 시굴조사 - 남문지 남벽(1/50)



도면 13. 남문지 남벽(Tr.1) 옹정부 사진(上)과 입면도(下)





사진 20. 서문지 조사 전 항공사진



사진 21. 서문지 조사 전 근경



사진 22. 남문지 조사 전 항공사진



사진 23. 남문지 조사 전 근경





사진 24. 서문지 조사 중 항공사진



사진 25. 남문지 조사 중 항공사진





사진 26. 서문지 트렌치 조사 1



사진 27. 서문지 트렌치 조사 2





사진 28. 서문지 트렌치 조사 3



사진 29. 자문위원회의 1





사진 30. 자문위원회의 2



사진 31. 자문위원회의 3





사진 32. 조사 후 복토 광경 1



사진 33. 조사 후 복토 광경 2





사진 34. 조사 후 복토 광경 3



사진 35. 조사 후 복토 광경 4





사진 36. 서문지 조사 후 항공사진



사진 37. 남문지 조사 후 항공사진

## IV. 조사결과

이번 조사는 해남 이진성지(시도기념물 제 120호) 문화재 시굴조사(허가 제2022-0528호)로 조사구역 내에 10×10m그리드를 기준으로 서문지와 남문지 일부에 대한 조سات렌치를 설치하여 제토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227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2,563m<sup>2</sup>이다.

1. 조사지역 내 트렌치 5개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성벽이 잘 남아 있는 서문지, 남문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 1, 2, 3 내부에서 초석과 건물지 등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유물도 함께 확인되었다.

2. 조사지역 내 층위는 크게 3개 층위로 확인되었으며, 표토층[I 층:Hue 7.5YR 5/4] → 퇴적층[II 층:Hue 7.5YR 3/4]→ 바닥층[III 층:Hue 7.5YR 5/6] 순으로 확인되었다. 바닥층은 기반층으로 성벽과 관련된 적심석과 할석들이 확인되었으며, 수혈 및 건물지도 함께 확인되었다. 토층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수록 퇴적층의 높이가 높았다. 이후 최근 발경작을 하며 표토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조سات렌치 내부를 조사한 결과 트렌치 1, 2, 3에서 성벽 등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유구가 확인된 범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여 해남 이진성지에 대한 축성법, 성격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해남 이진성지 시굴조사 결과, 조سات렌치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세 부사항으로 성벽 기저부 관련 적심석 및 건물지 관련 할석과 용도미상 수혈이 확인되었다. 이에 자문위원과 조사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적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차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유적보존에 대한 조사단익견서

조사는 해남 이진성지 문화재 시굴조사(허가 제2022-0528호)로 이진성지는 시도기념물 제120호이다.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227번지 일원이고, 조사면적은 2,563㎡이다. 조사방법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10×10m의 일정한 그리드를 설정한 후 성벽이 잘 남아있는 서문지와 남문지 부근에 조سات렌치 5개를 설치하여 내부 제토를 통해 매장문화재 유무를 확인하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조사지역 내 서문지에 4개, 남문지에 1개의 조سات렌치를 설치하여 성벽 축성법과 바닥에 남아있는 기저부를 확인하였으며, 서벽의 경우 최근 재보수하며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트렌치 3에서 기저부와 관련 된 것으로 보이는 적심석과 할석이 일부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조사지역 대표 층위는 3개 층위로 표토층[I 층:Hue 7.5YR 5/4] → 퇴적층[II 층:Hue 7.5YR 3/4] → 기반층[III 층:Hue 7.5YR 5/6]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서문지 주변 체성부는 협축식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성벽을 최근 재보수하며 내탁식에서 협축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성벽 옹성부 관련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성벽축조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트렌치 1, 2, 3에서 성벽 관련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에서 수혈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단에서는 축성법 및 성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자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022. 08.

고대문화재연구원 장(인)



<자문위원의견서>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명칭		해남 이진성지 시굴조사 용역			
유적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1228			
조사면적		2,563㎡	조사기관		(재)고대문화재연구원
조사기간			회의 일시		2022.06.15.
유적현황 및 성격		<p>◦ 조사결과 시굴지 북벽 내 3㎡에서 시벽 제형의 원형 기러부 등대석이 확인되었으며, 남쪽지 개구부 서측벽과 관련된 직벽과 남쪽지 동심 외벽 기러부가 확인되었다.</p> <p>◦ 축조수법은 조원지래 기와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었다.</p>			
조사기관 검토의견		<p>◦ 조사기관의 조사 방법과 유구에 대한 이해도는 적절하다고 하겠다.</p>			
추가 의견		<p>◦ 시벽 제형 원형 등대석이 확인된 지점 부근과 시굴지 북 동심 일원과 남쪽지 북 동심 일원에 대하여 확장 발굴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유구의 축조기법 및 성격에 대하여</p>			
자 문 위 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함					
소 속	전공·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전공·전문분야	성 명
한빛재	고고학 (성곽)	심 정 보 (인)			(인)
목포대학교	고고학	이정호 (인)			(인)
동성대	고고학	이정호 (인)			(인)
<p>2022년 6월 15일</p> <p>(재)고대문화재연구원 귀중</p>					

## 출토유물 현황

### 1. 출토유물 목록

####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고
1. 금속	.	.	
2. 옥석유리	.	.	
3. 토도	.	.	
4. 골각	.	.	
5. 목죽초칠	.	.	
6. 기타	.	.	
계	해당사항없음		

####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									
2									
	소 계	없음							

### 2. 출토유물





재단법인  
**고대문화재연구원**  
Ancient Institute of Heritage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91(송하동 43-28) 송하동 금화타운 Apt

Tel\_ 062.413.3700 Fax\_ 062.413.3730

Homepage\_ [www.godae.co.kr](http://www.godae.co.kr)